호근정원은 2022년에 지어진 2층 농어촌 민박으로 감귤밭과 바다를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에요. 1층은 감귤밭 속 호근정원이라 불리고, 2층은 바다전망 호근정원이라고 합니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벗 삼아 쉬었다 갈 수 있는 휴식처로 운영하고 있어요. 호근정원은 범섬이 잘 보이고, 달콤한 귤들이 자라는 호근마을에 위치해 있어요. 가을에는 한치, 갈치잡이 배들의 별빛을 멀리서 볼 수 있고, 겨울에는 소나무와 귤 나무를 구경할 수 있어요.

"육지에서 살다가 제주도에 내려와서 제주 올레에서 3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어요. 제주 올레 여행자 센터 운영을 하다가 제가 직접 휴식공간을 운영해 보고 싶어서 호근동 위치의 건물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호근정원은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던 곳이었습니다. 새로 건물을 짓고 공간을 만들면서 제주도의 환경 보호에 대한 절실함도 갖게 되었습니다. 게스트분들께 제주의 자연을 보존 하고픈 저의 마음을 조금씩 전하고 있습니다."

호근정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1405-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남로 82

우리 숙소의 특별한 점

• 숲세권 정원. 숲세권 한가운데 있어서 맑은 공기와 청량한 풍경을 자랑해요.

• 감귤밭에 풍덩. 시내와 가깝기도 하지만 사면이 감귤밭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 감귤밭 체험. 11월에서 1월 사이에 달콤한 감귤을 직접 따보세요.

• 노천탕. 가족과 함께 여행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이런 여행객에게 추천

• TV 없이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분

• 아침 올레길 산책과 돌담의 능소화와 감귤꽃을 따라 걷고 싶은 분

• 밤별 감상과 바다를 즐기기를 원하시는 분

알아두면 좋은 사항

•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공간임만큼 공유의 공간임을 인식하고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 13세 미만은 받지 않는 노키즈존입니다.

• 여행객들이 텀블러 한 개와 장바구니 하나를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 1층 숙소를 예약하시는 손님에게는 제주 샘주(전통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